



박용만 회장 “식약처 공유주방 승인 환영” 2



황교안 만난 김기문 회장 “추경안 조속 통과를” 13

코스피(15일) 2082.48 (-4.18P) 코스닥 674.79 (-6.38P)  
환율(달러당 원화) 1179.30 (+0.1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434% (+0.00%P)

## 국민 38% “텃세 없애야 카풀 달린다”

### KDI ‘공유경제 혁신 국민조사’

같은 원인 ‘업계 지나친 반대’ 꼽아  
활성화 수준엔 67% “낮다”고 답해  
이용 경험 있을수록 “허용” 의견 많아

#### 공유경제 갈등 이유는 (단위: %)

기존 업계의 지나친 반대	38.0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	19.3
정치권의 조정 실패	17.4
업계의 무리한 사업 추진	13.9
모름·무응답	11.4

※ 출처: KDI 여론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1명은 타다·카풀로 대표되는 공유 경제 갈등의 원인으로 기존 업계를 지목했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유경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8.0%가 공유경제 갈등의 원인으로 ‘기존 업계의 지나친 반대’를 꼽았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19.3%) △국회 등 정치권의 조정 실패(17.4%) △공유경제 업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13.9%)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의 52.5%는 기존 업계의 반대를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30대(50.7%)와 40대(49.1%)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50대와 60대에선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응답이 각각 33.5%, 31.4%로 많았다.

현재 한국의 공유경제 활성화 수준에 대해선 응답자의 66.8%가 ‘낮다’ 또는 ‘매우 낮다’고 답했다. 국민은 공유경제 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해선 시간이나 횟수 제한을 전제로 허용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승차공유의 경우 응답자 42.3%는 오전 7~10시와 오후 8~11시 등 시간 제한을 두고, 일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시간은 제한하지 않되 일일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15.1%였다. 허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7%였다. 승차공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7.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미경험자는 허용금지(17.1%) 비율이 다소 높았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발언한 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文대통령 “공생 깬 日, 더 큰 피해” 직격탄

### “한국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 성장방해 목적이면 성공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상호 의존과 상호 공생으로 반세기 동안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9·10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그것이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재·부품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 등 경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

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 짓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5면에 계속  
신동민 기자 lawsdm@

## 韓銀 별관공사 ‘줄소송’ 2년內 첫삽도 못 뜬다

### 삼성물산 본인訴·경실련은 조달청 고발

한국은행의 내 집 마련 꿈이 당분간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삼성물산이 낙찰 예정자 지위 확인 본안 소송을 내 소송전 2라운드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통합별관 공사는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재판장 이승권 수석부장판사)는 한은 통합별관 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 예정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삼성물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1일 계룡건설이 법원으로부터 낙찰 예정자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예정된 결과다.

법원은 계룡건설의 낙찰 예정자 지위를 인정하면서 조달청이 예고한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딱 막힌 통합별관 문제의 활로를 찾아주는 듯했으나 문제가 생겼다. 삼성물산이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7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 낙찰 예정자 지위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과 삼성은 세입자와 건물주 관계인 동시에 새 건물 입주 예정자와 시공 예정자인 묘한 사이다.

한은은 태평로 옛 삼성본관에 세 들어 살고 있다.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공동 소유였던 삼성본관 건물은 1998년 삼성전자가 매입했으며, 2009년부터는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15일에는 시민단체가 불공정입찰을 지적하며 공사 입찰을 맡은 조달청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사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조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룡건설의 낙찰 예정자 지위가 인정되면서 조달청은 한은 통합별관 공사와 관련해 새로 입찰공고를 낼 수가 없다. 계룡건설이 첫 삽을 뜨더라도 삼성물산의 본안 소송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민사합의 사건은 사안에 따라 2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예상이다.

김종용 기자 deep@

## 중심을 잡습니다 핵심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국내외 최대 취재망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다양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균형잡힌 언론의 시작은  
언제나 연합뉴스입니다.

# 美공유주방 ‘클라우드키친’ 한국 외식시장 총공세

### 5월 강남에 1호점... ‘제2 우버’ 목표로 올 6곳 추가 오픈 온라인 배달음식 시장 세계 4위... 美보다 성장 속도 빨라 리스크 낮고 임대료 절감 효과... 토종업체 위극과 경쟁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트래비스 칼라닉이 한국 시장에 쫓겼다.

로이터통신은 칼라닉이 세운 공유주방 ‘클라우드키친’이 ‘제 2의 우버’를 목표로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한국 외식산업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최근 소개했다.

클라우드키친은 5월 강남 뒷골목에 20개 이상의 분리된 주방 공간을 갖춘 한국 1호점을 열었다. 클라우드키친은 10개 이상의 아웃렛을 더 열 계획이며, 그중 6곳은 연내 오픈 예정이다.

앞서 클라우드키친은 지난달 한국 토종 공유주방 스타트업인 ‘심플키친’을 인수하는 등 한국 시장에서 적극 공세를 펴고 있다. 심플키친은 올해 말까지 500개 레스토랑을 고객으로 하는 25개 매장을 여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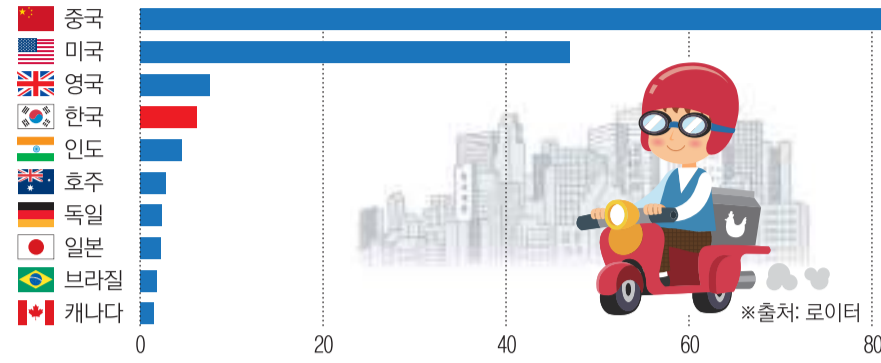
이 목표다.

한국은 클라우드키친이 자체 브랜드로 처음 진출하는 해외 시장이다. 그만큼 한국에서 공유주방 사업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4위 온라인 음식배달시장이다. 식당 수와 음식 지출 면에서 한국 시장은 인구 규모를 크게 웃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된 것도 공유주방과 음식배달 전문업체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1인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 독신 가구 비율은 2018년 29%로 10여년 전 대비 약 2배 늘었다.

투자회사 스파크랩스의 지미 김 공동대표는 “칼라닉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한국

세계 10대 음식배달시장 규모 (단위: 10억 달러)



시장에 진출한 것은 그만큼 공유주방 산업에 있어서 한국시장의 매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한국시장 규모는 크며, 미국보다 성장 속도도 빠르다”고 설명했다.

강남에서 레스토랑을 오랫동안 운영해 왔다는 한 자영업자도 이달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접고 클라우드키친에 입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그는 16.5㎡ 규모의 주방을 임대해 배달 전문으로 아보카도 버거와 베이글을 판매할 계획이다. 그는 “이전에 공유주방을 써본 적이 없다”며 “그러나 리스크가 낮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다양한 메뉴를 실험할 기회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임대료가 이전보다 약 3분의 2 줄었다”고 덧붙였다.

칼라닉은 불미스러운 일로 우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난 후 지난해 1억5000만 달러(약 1800억 원)에 공유서비스 업체 ‘시티스토리시스시스템스’를 인수했다. 클라우드키친은 시티스토리의 주요 사업부로, 단순한 주방 임대 사업을 넘어서 레스토랑 점주들을 위한 마케팅 서비스도 지원한다. 칼라닉은 지난해 영국 ‘푸

드스타’를 인수하고 현재 중국에서의 투자 기회를 엿보는 등 공유주방을 제2의 우버로 키우려는 야심이다.

그런 그가 한국에 주목한 건 한국은 배달 전문 음식점이 발달해 있어 공유주방 사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은 5180만 인구의 약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성인의 95%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음식점 수는 127개로, 중국(69개)과 일본(57개), 미국(21개)을 능가한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규모는 59억 달러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커졌고, 2023년에는 9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클라우드키친은 한국에서 토종 업체인 위극과 점유율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위극의 앤디 김 CEO는 로이터에 “투자자들은 글로벌 식품 배달 시장의 최전선인 한국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며 “공유주방 기업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다른 아시아 시장에도 응용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박용만 “식약처 공무원 업어주고 싶다... 공유주방 승인 환영”

(대한상의 회장)



박용만(왼쪽) 대한상의 회장이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이의경 처장과 악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골목식당 실험실 역할 기대”

“공유주방(규제)을 풀어주신 식약처 공무원 한 분 한 분 다 업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5일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 양승만 그래잇 대표 등 청년 외식스타트업과 함께 서울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공유주방 규제 완화’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박 회장은 식약처 이의경 처장과 한상배 식품안전정책국장, 김현정 식품안

전정책과장 등 공유주방 샌드박스 담당자를 만난 자리에서 “공유주방이 골목식당, 치킨집으로 일컬어지는 초영세 스타트업에 큰 인기인데 샌드박스를 활용해 속도감 있게 해결해 주셨다”고 평가했다.

1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은 초기 창업 비용의 절감 효과가 크고, 근무 시간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무엇보다 조리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 비용이 줄어든다.

이에 식약처는 11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하나의 주방을 다

수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박 회장은 “하루에 430여 개 음식점이 생기고, 370여 개는 폐업하는 게 현실”이라며 “4명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공유주방이 ‘골목식당 실험실’ 역할을 톡톡히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약처가 미래사업의 새 길을 여는 엔젤(Angel)이 돼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회장은 “식약처의 공유주방 샌드박스 승인사례가 산업,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로 더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 규제는 더 강화하고, 국민 편

의를 위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건의했다.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양승만 그래잇 대표는 “최소 5000만 원의 자금을 들여 공간을 얻게 되면 상품도 개발해야 하고 판매량도 보장되지 않는 스타트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제는 월평균 30만~90만 원 정도만 내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만들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샌드박스 허가를 받은 김기웅 위극 대표는 “공유주방을 거쳐 창업한 경우 5년 생존율이 90%이지만 거치지 않은 경우는 10%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식품, 외식업자들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돼 식품, 외식업계의 유니콘을 탄생시키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태양과 바람의 힘을 전기로 바꾸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씁니다.  
자동차는 탄소 없이 달리고, 공장 및 빌딩은 에너지의 낭비를 똑똑하게 잡아냅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한국전력공사 KEPCO

# “일감 몰아주기·환경 규제… ‘소재 국산화’ 곳곳에 지뢰”

## 日 화이트리스트 추가보복 앞두고 세계 비상

18일 일본의 규제가 추가될 경우 TV와 같은 생활가전과 스마트폰 등 완제품 분야까지 피해사정권에 들어갈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에서 귀국한 후 14일 긴급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향후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휴대폰과 가전 등 다른 사업으로의 영향 가능성까지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도 추가규제 폭풍에 따라 피해 확대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계는 대기업의 소재·부품 국산화에 소홀했다는 책임론에 대해서도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5일 전자업계에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가전과 스마트폰 등 완제품 분야 역시 피해 사정권에 들어갈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의 경우, 삼성전자는 일부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소니 제품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5월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2030년 이전에 선두를 차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소니는 현재까지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며 확고부동한 1위에 올라 있다.

일본의 규제 범위가 장비 쪽으로 확산되

면 TV 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우리나라가 수입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의 74%가 일본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TV를 추가로 생산할 경우에 또 다른 생산설비가 필요하다. 이때 일본산 장비를 들여오지 못해 생산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권 등 정지권 일각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재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삼성에서 에

일부 갤럭시폰에 소니 이미지센서 평판디스플레이 장비 74% 일본산 스마트폰·TV 등 완제품도 사정권

국산화 위해 ‘수직계열화’ 나서면 ‘일감 몰아주기’ 비난 여론 쏟아져 국내 소재산업 ‘환경 규제’ 걸림돌

칭가스 등의 소재를 국산화했다면 삼성 소재를 SK하이닉스에서 쓸 리가 없고 삼성 전자에 거의 공급됐을 텐데,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대표 사례로 적발돼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수직계열화’에 나서면 ‘일감 몰아주기’라 비판이 쏟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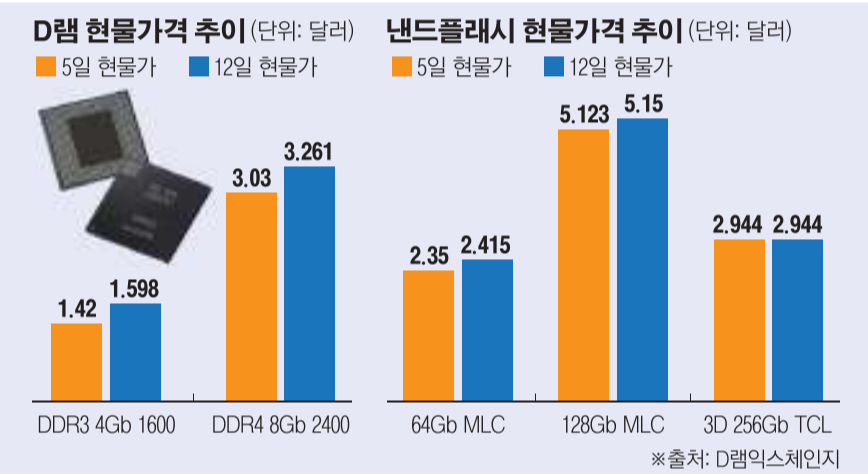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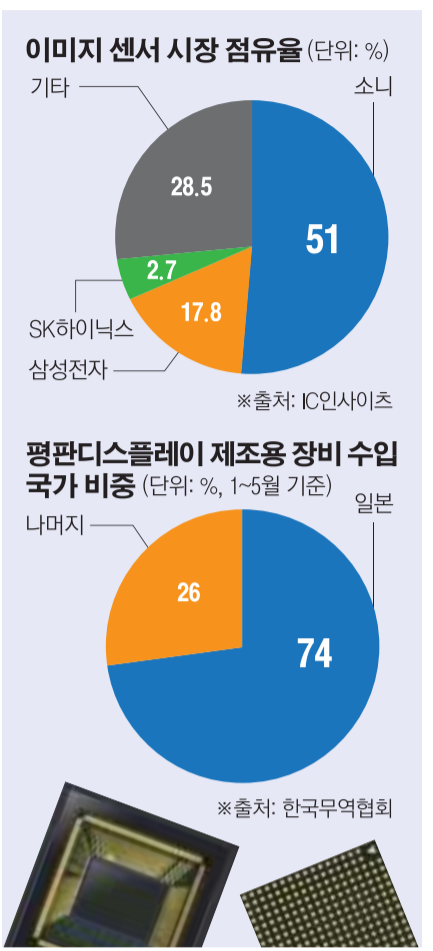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경우, 그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

과하는 것이다.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3% 이상인 계열사 간에 30% 이상의 내부 거래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내부 IT시스템을 다 보여줘야 하는 SI(시스템통합) 업체 등도 일감 몰아주기라 문제 삼는 마당에, 소재를 내부 계열사에서 가져다 쓴다면 더 큰 반발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국내에선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전자업계의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십 년 이상 소재를 개발해 온 일본 업체들의 기술을 따라잡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만약 투자를 하더라도 환경 규제로 사업 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이 모든 걸 극복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면서 상당한 사회적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우리나라 산업계가 소재 국산화로 가는 곳곳에 ‘지뢰’가 묻혀 있다는 지적이다.

송영록 기자 syr@한영대 기자 yeongdai@



## 日 규제 여파 메모리값 쾅쾅 일주일 만에 최고 13% 올라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 “불확실성 여전 불안감 고조”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대(對)한국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주요 메모리 반도체의 현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추세적인 상승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다른 요인들과 맞물려 반도체 업황의 ‘바닥 통과’ 가능성은 커졌다고 분석한다.

15일 관련 업계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 등에 따르면 PC에 주로 사용되는 DDR4 8기가비트(Gb) D램 제품의 현물 가격은 지난주 3.26달러로 거래를 마치면서 일주일 전(3.03달러)에 비해 7.6%나 올랐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 사양 제품인 DDR 3 4Gb 현물가는 12일 1.60달러를 기록하면서 주간 상승폭이 무려 12.7%에 달했다. 10일 3.5% 오른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4.7%와 3.9%나 상승했다.

이와 함께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와 USB 드라이브 등에 사용되는 64Gb MLC(멀티플 레벨 셀) 낸드플래시 제품 현물 가격은 2.42달러에 거래돼 일주일 전(2.35달러)보다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D 256Gb TLC(트리플 레벨 셀) 낸드플래시 가격은 2.94달러로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급락세가 이어진 데 따른 반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최근 일본의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재고 수준을 고려하면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한일 갈등에 따른 불안감에 의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현물시장 딜러들의 호가 조정으로 ‘노이즈’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과도한 재고 부담을 감안하면 현물가격 상승이 고정거래가격(대단위 계약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일 갈등을 이용한 현물시장 딜러들의 인위적 호가 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일본 도시바의 미에(三重)현 윳카이치(四日市) 공장 정전에 따른 생산라인 가동 중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감축설 등과 함께 한일 갈등에 따른 반도체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메모리 가격의 반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가격 반등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업황 사이클만 보면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지만 워낙 불확실성이 커서 기업들이 전전공공하는 모습”이라면서 “문제는 이런 변수가 산업 차원이 아닌 글로벌 역학관계에 따른 것이어서 기업으로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송영록 기자 syr@

# 대우위니아 그룹

## “창립 20주년 새롭게 출발합니다”

20년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대우그룹이 **대우위니아그룹**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더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해보세요

- ▶ 위니아데제
- ▶ 위니아대우
- ▶ 위니아SLS
- ▶ 대우메탈트러스트
- ▶ 스마트저축은행
- ▶ 대우에이텍
- ▶ 대우플러스
- ▶ 대우에이피
- ▶ 대우글로벌
- ▶ 대우홀딩스

<100분→68분>

# 청라~강남 지하철로 한번에... 소요시간 32분 단축

### 정부, 7호선 석남~청라국제도시 10.7km 연장 사업 승인 78분 걸리는 구로역은 42분... 2년 앞당겨 2027년 개통

2027년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강남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16일자로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잇는 연장 10.7km(정거장 6개)에 총사업비는 1조2977억 원(국비 7786억 원, 지방비 5191억 원)이다. 인천 서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2017년 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은 B/C 1.10, AHP 0.561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은 1996년 강북구간을 시작으로 차례로 개통해 현재는 장암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총 57.1km를 운행하고 있으며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역까지의 연장선(4.2km)은 20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인천시는 이번 달 공사수행방식(타기공사 또는 기타공사)을 결정하고 9월부터 설계절차에 착수해 2021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한다.



애초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개통 시기가 2029년으로 제시됐으나, 조속한 개통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을 고려해 대광위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통 시기를 2027년 상반기로 약 2년 정도 앞당겼다. 열차는 1대가 8칸으로 구성된 중량(重

量)전철로 출퇴근 시 6분, 평시는 12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공항철도로, 석남역에서 인천 2호선으로 각각 갈아탈 수 있다. 대광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되면 청라에서 서울 1호선 환승역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현재 78분에서 42분으로 36분 단축되고 강남(고속터미널)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68분에 갈 수 있다. 청라에서 강남까지 당초 100분에서 32분이 단축되는 것이다. 김희수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개통 시기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2년가량 단축한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국유지 59곳 개발 어떻게...”

### 9월 16일까지 아이디어 공모

국유재산 활용에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개월간 ‘국유재산 개발·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지는 지난해 국유재산 총조사에서 발굴된 국유지를 포함해 개발 여건이 우수한 국유지 59곳(총 13만㎡)이다. 면적별로는 소규모(1000㎡미만) 30곳, 중규모(1000~1만㎡미만) 26곳, 대규모(1만㎡ 이상) 3곳이다. 대규모 국유지는 전남 고흥군 폐교부지, 대전 유성구 준주거지역부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준주거지역부지 등이다. 입지별로는 세종시를 제외한 각 시도마다 1곳 이상씩 포함됐다. 경기도 11곳으로 가장 많고, 울산(7곳), 대전·대구(각 6곳)가 뒤를 이었다. 공모전은 일반 국민 부문과 건축·도시·부동산·개발관련 전공자 및 업무종사자 등 전문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국유재산 개발·활용 방안이다. 기재부는 응모작에 대해 적합성, 실행 가능성, 효율성, 혁신성을 심사해 대상 2건, 최우수상 4건, 우수상 6건, 장려상 4건 등 총 16건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상금은 총 6900만 원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동반자살 모집 글 올리면 오늘부터 2년 이하 징역

지난달 3일부터 2주간 신고된 자살유발 정보가 1만69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살동반자를 모집하는 글은 50% 가까이 급증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16일)에 앞서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사업자의 협조로 5244건(30.9%)을 삭제했다. 신고 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을 희화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한 기타 자살유발정보는 3289건(19.4%)이었다. 이어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 8.4%) 등의 순이었다. 이런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SNS(1만 2862건, 75.8%)를 통해 유통됐다. 기타 사이트는 1736건(10.2%), 온라인 커뮤니티는 1449건(8.5%), 포털 사이트는 917건(5.4%) 등이었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가 전년(1462건)보다 47.4% 늘었다. 이 중 88.5%(1907건)는 트위터에서 유통됐다. 16일부터 개정 자살예방법에 따라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공공건설 상생협력 맞손

이인영(왼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현미(여섯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운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변창출 한국도지주택공사 사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이 원내대표, 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연합뉴스

## 미세먼지 줄어들까...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기준 강화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존·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해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 VOCs는 벤젠, 톨루엔 등으로 그 자체로도 사람에게 해롭지만,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나 오존으로 전환해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분에 중점을 뒀다.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과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VOCs 함유기준을 강화한다. 비산 배출은 굴뚝 같은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 물질이 곧바로 대기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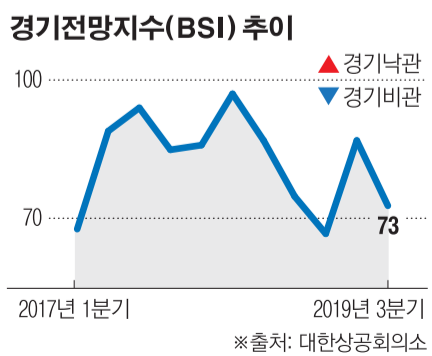
개정안은 원유 정제 시설 등에서 비산 배출이 많은 저장 탱크, 냉각탑, 플레어 스택 등의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고정지붕형 저장 탱크에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의무 설치를 내부 부상 지붕형 저장 탱크에도 적용했다. 석유제품 생산공정에서 화재나 정전 등으로 인한 압력상승 요인이 생기면 폭발 위험이 있는 폐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시켜 대기로 배출하는 장치인 플레어 스택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 친환경차 비중 2.3% 올해 60만대 넘길 듯

친환경자동차가 6월 말 기준으로 53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60만대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기차는 세컨드카로 선호도가 높았다. 1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344만 4165대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약 1.0%(약 24만 대) 증가했다. 인구 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국산차는 2117만대(90.3%), 수입차는 228만대(9.7%)로 수입차 점유율은 지난해 6월 8.9%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 확대와 고연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자동차는 53만 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서 2.3%로 늘었다. 이 중 전기차는 7만2814대를 등록해 1년 만에 약 2배, 수소차는 2353대로 약 6.6배, 하이브리드차는 45만5288대로 약 1.3배 증가했다. 특히 가구당 보유차량 증가 추세에 따라 기존 차량 외에 전기차를 동시에 등록한 승용자동차의 소유자는 2만2177명으로 전년(1만380명) 대비 약 2.1배 늘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반짝 상승 제조업 체감경기 1분기 만에 가라앉아

### 3분기 BSI 73, 전분기比 14P↓ 대한상의 “수출·내수 동반 부진” 10곳 중 6곳 “상반기 목표 미달성”



제조업 체감경기가 지난 2분기 급상승 이후 한 분기 만에 다시 가라앉았다. 지속되는 세계 경기둔화와 내수부진으로 수출·내수기업들의 경기전망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3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는 2분기보다 14포인트 하락한 73으로 집계됐다. BSI는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의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이면 반대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교역 둔화세로 수출 감소가 7개월째 이어지는 등 경제·산업 전

반의 성장 모멘텀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 하반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며 체감경기가 반락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가장 많은 기업이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으로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매출 부진(54.3%)’을 꼽았다. 이밖에 ‘임금 상승 등 비용부담의 증가(27.9%)’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6.8%)’ 등이 뒤를 이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체감경기전망은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3분기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88로 전 분기(100)보다 12포인트 하락했으며, 내수부문은 70으로 14포인트 떨어졌다.

‘상반기 실적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제조기업 10곳 중 6곳(60.6%)이 ‘못 미칠 것’으로 응답했다. ‘목표치 달성’은 37.3%였고 ‘초과 달성’은 2.1%에 그쳤다. 목표치 미달 이유로는 ‘내수침체 장기화(84.9%)’ ‘고용환경 변화(28%)’ ‘미중 통상분쟁 심화(18.7%)’ 등이 주된 이유였다. 김문태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경제·산업 전반의 성장역량 약화와 통제가 어려운 대외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 사업운동을 보수적으로 펴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조치들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 文대통령·5당 대표 조만간 회동...정경두 해임안이 변수

### '일대일 회담' 고집하던 황교안 "대통령과 조건없이 회담" 제안 한국·바미당 국방장관 해임안 제출... 민주 "받아들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사진) 대표가 15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한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여 남북 판문점 회동, 일본 경제보복 대응 등 현안에서 초당적인 논의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담 형식'을 둘러싸고 '대통령-5당 대표 회동'을 주장한 청와대와 '일대일 회동'을 고수한 한국당의 입장차가 그간 회동에 걸림돌이 됐다. 황 대표가 이날 어떤 형식의 회동이든 수용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했고,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도 거부할 이유가 없는 만큼 조만간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여야 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형식이나 의제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과 정경두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경질 주장 등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어 인사문제의 의제 포함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아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기업 구조조정 지원 '원샷법' 5년 연장

### 국회 산자위 통과... 적용 범위 신산업 등 확대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시행이 5년 연장되고 적용 범위의 신산업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2일 일몰을 앞둔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17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19일 본회의가 열리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3년 한시법이다.

위성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

업활력법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12일까지 5년 연장했다. 적용 범위도 현행 과잉공급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확대했다.

신산업 진출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다. 신성장동력 기술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73개 그 사업화 여부는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신산업 진출 기업에 한해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상법(분할·합병) 및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을 배제했다. 대신 세제와 금리우대 등 다른 인센티브는 제공된다. 김하늬 기자 honey@



국회 예결위서 만난 부부 정태욱(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이 아내인 유명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정책과 관련해 집중 추궁하자 시선을 외면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공 공사 피해 본 주민 보상받는다

### 공사 손해보험 의무 가입

공공건축물 공사 중 발생한 침하·균열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린다.

조달청은 다음 달부터 직접설계, 시공관리를 수행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담보)을 의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설계·시공 단계별 민원 관리를 강화시키고,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먼저 공공 건축공사 설계 단계부터 침하

·균열 등 피해방지 계획(공법) 적용 및 민원 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시공 중에는 민원 관리사항을 집중 점검해 현장 상황에 따라 주변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설계변경 등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제3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의 무화를 통해 건설사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지원한다. 현재는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관람집회 시설공사, 전시시설공사 등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세종= 김지영 기자 jye@

## 문 대통령, 일에 직격탄

▶1면서 계속

그러면서 "4대 국제 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

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여러분도 자신감을 갖고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당부드린다"고 했다.

# 中, 2분기 경제성장률 6.2%... 27년 만에 최저

## 흔들리는 '바오류'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27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에 따른 것으로, 중국이 6%대 성장률을 일컫는 '바오류'를 지켜내기도 힘겨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현지시간)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1분기(6.4%)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보다 떨어진 수치이자 해당 통계가 시작된 1992년 이후 최저치다.

연간 기준으로 최저치는 텐안먼 사태로 인해 서구권의 경제 제재를 받았던 1990년의 3.9%다. 중국의 지난해 연간 GDP 증가율은 6.6%로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새로운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GDP 증가율은 6.3%다.

## 美무역전쟁·세계경기 둔화 영향 1분기보다 0.2%P 떨어져 금융불안 우려 경기 부양 신중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분기 GDP 증가율은 여전히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6.0~6.5%' 범위 안에 있지만, 2분기 중국 경제 활동 대부분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하기 전인 4월과 5월 초에 일어났다"며 앞날을 "가능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2분기 초반 해도 3월 중국 정부의 감세와 울림 시작된 대규모 인프라 지출로 낙관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미국



과의 무역 협상이 5월 10일 결렬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000억 달러(약 236조 원) 규모의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면서 중국 경제는 다시 수렁에 빠지게 됐다. 조지 매그너스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확실히 중국의 경제 활동은 4월까지의 확장기 조였다"며 "5월에 돌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NYT는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성장을 강력하게 이끌었던 수출과 수입이 최근 수개월간 부진을 보이면서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가 12일 발표한 6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3%, 수입은 7.3% 각각 감소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물론 세계 각국의 전반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해외 수요 약화가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맥쿼리

캐피탈의 래리 후 중국 경제 담당 대표는 "글로벌 경제의 둔화 속에 중국도 확실히 전반적으로 감속 추세"라고 말했다.

무역은 물론 부채에 허덕이는 중국 금융 시스템이 최근 수주간 잇따른 충격에 흔들린 것도 경기둔화를 부채질했다는 평가다. 중국 금융당국은 5월 말 유동성 위기를 맞은 네이멍구자치구 소재 바오상은행을 압류하고 1년간 경영권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져서도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신중한 입장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누적이된 경기부양책으로 국유 기업과 지방 정부의 채무가 커져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4월부터 2조 위안(약 343조 원) 규모의 감세·수수로 삭감을 시작, 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기술株·제조업 부진에... 美 '어닝 리세션' 경고음

## 2분기 어닝시즌 '먹구름'

S&P500 기업 EPS 2.8% 줄 듯 뉴욕증시 하락세 전환 불안 고조

2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먹구름에 잔뜩 끼었다. 특히 기술주 부진에 '어닝 리세션(Earnings Recession·실적 침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기술과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실적이 특히 부진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뉴욕증시의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 S&P500 기업들의 2분기 주당순이익(EPS)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분기의 0.3% 감소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팩트셋의 전망이 들어맞는다면 미국 기업들은 2분기 연속 순이익이 감소하는 어닝 리세션에 진입하게 된다고 FT는 전했다. 어닝 리세션은 2016년 중반 이후 처음이다.

기업 순이익의 감소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 최근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른 미국 경기둔화 우려를 더욱 부각시킬 전망이다. 10년간 이어진 미국의 경기 확장세가 끝나면 투자자들이 위험을 줄이고자 주식 대신 채권 등으로 옮기면서 금융시장 혼란을 촉발할 수 있다.

1분기 어닝시즌 부진에도 뉴욕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달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확실하게 보내면서 주가 부양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2일 다우와 S&P500, 나스닥 등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 시작될 어닝시즌은 증시 랠리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기술주는 이번 어닝시즌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크레디티스 위스는 S&P500기술업종지수에 속한 기업들의 2분기 EPS가 전년보다 평균 7%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미국 기업들은 대체로 자사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Guidance·선제 안내)'를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 증시 하락 압박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아홉 번째 생일 맞은 판다 외교관 '자오칭' 중국이 2017년 독일에 선물한 판다 '자오칭'이 15일(현지시간)로 아홉 살 생일을 맞아 베를린 동물원에서 아재로 만든 생일 케이크 냄새를 맡고 있다. 중국은 '판다 외교'를 통해 세계 각국과 우호 관계를 쌓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판다가 양국 우호의 새로운 대사가 될 것"이라며 자오칭을 독일에 선물했다. 중국은 1980년부터 세마리를 베를린동물원에 보냈지만 2012년 마지막 남은 한 마리마저 세상을 떠났다. 베를린/로이터연합뉴스

# '대만 트럼프' 귀타이밍, 무너지는 총통의 꿈

## 野 경선서 가오슝 시장에 참패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

대만 총통에 도전하는 귀타이밍(사진) 전 하이테크산업(폭스콘) 회장의 꿈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중 율화 노선인 대만 야당 국민당은 이날 당 공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선에서 한귀위 가오슝 시장이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경선은 8-14일 7일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의 지지율로 결정했다. 총 5명이 출마했는데, 한 시장과 귀 전 회장이 마지막까지 맞붙었다. 귀 전 회장이 한 시장을 맹추격했으나 결과적으로 한 시장이 압도적 지지율로 이겼다. 한 시장은 44.8%를 얻어 귀타이밍(27.7%), 에릭추(17.9%) 전 타이베이 시장을 큰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한 시장은 28일 국민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국민당 대선 후보로 공



식 결정된다. 앞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역시 여론조사 방식으로 차이잉원 현 총통을 차기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내년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현 총통과 국민당 소속 한 시장이 맞붙게 됐다.

이번 당 경선에서 후보가 정해지면서 귀 전 회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대만 최고 부호로 애플의 주요 제품을 조립·생산하는 하이테크기업인 귀 전 회장은 지난 4월 총통 선거에 출마표를 던져 주목 받았다. 이어 6월 주주총회에서 그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주주총회에서 귀 회장은 이사직을 유지하되 기업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총통 선거 출마 선언 직후 귀 전 회장은 사업가 출신이라는 배경과 그간의 발언들로 '대만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으며 총통 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한때 여론조사에서 차이잉원 현 총통의 두 배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민당 경선에서는 한 시장과 당내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자금력을 앞세워 TV 광고로 공세를 펴는 귀 전 회장에 대해 유권자들의 반감이 커졌다. 반면 청과물시장 경력을 앞세우며 '서민 총통'을 자처한 한 시장은 경제 격차 확대에 불만을 가진 일반 시민으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다.

일각에서는 한 시장에 밀린 귀 전 회장이 국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당은 이날 당의 결속을 위해 경선 후보 전원에게 기자회견 참석을 요청했지만 귀 회장은 불참했다.

만일 귀 전 회장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국민당의 분열로 차이잉원 현 총통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회원국 100개... 몸집 커진 'AIIB'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가국이 100개로 늘었다.

1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AIIB는 13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제4차 연례총회에서 베냉, 지부티, 르완다 등 아프리카 3개국의 가입을 공식으로 비준했다. 이로써 AIIB 참가국은 2016년 출범 당시 57개국에서 100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189개국으로 구성된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WB)보다는 작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 68개국)에 비해서는 큰 규모다.

회원국 총 수도 크게 늘었지만 또 하나 두드러지는 점은 회원국 구성에 있다. 유럽, 아프리카 등 아시아 이외 지역의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AIIB의 몸집이 커진 만큼 융자 규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금이 1000억 달러(약 117조 9700억 원)인 AIIB는 지난해 말까지 13개 나라의 35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75억 달러의 융자를 제공했다.

## 르완다 등 아프리카 3개국 가입 68개국 참여 ADB보다 규모 커

더욱이 인프라 건설에 대한 자금 융자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ADB가 2010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서만 2020년까지 인프라 건설에 8조 달러가 필요하다.

한편, AIIB의 확장세를 두고 WB와 국제통화기금(IMF)을 주도하는 미국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AIIB에 대해 중국이 자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AIIB의 30%가량 지분을 보유, 가장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AIIB를 국제환경 기준을 따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새 다자기구로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AIIB와 중국의 미묘한 관계는 계속 주목받을 전망이다.

중국이 지부티 같은 국가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별'에 위치한 지부티에 지난해 첫 해외 군사기지를 설치했다. 또 14개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모두 중국 은행이 자금을 융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Powered by Innovation

전세계 어디서든

장비의 위치와 상태, 가동 현황을 파악해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DoosanCONNECT™의 스마트 기술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갑니다

# 인프라에 스마트를 더하다

## 두산인프라코어



장비위치정보  
강원도 삼척



소모품 교체 알림  
엔진오일필터 (3일)



평균 연비  
21.8 L/hr (지역 평균 24.3 L/h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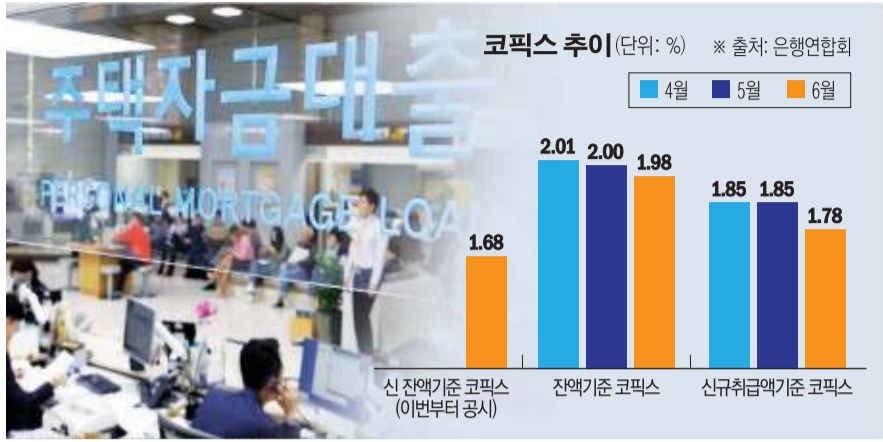


\*DoosanCONNECT™  
고객-장비-본사 직원 간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입니다

<잔액 기준>

# 0.3%P 낮아진 新코픽스... 대출 이자 부담 줄어든다

### 1.68%... 3개월 연속 내림세 은행聯 “수수료·대출규제 등 유불리 따져 대출 갈아타야”



새로 도입된 잔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1.68%로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보다 0.30%포인트가 하락하면서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도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15시 6월 말 기준 코픽스를 공시했다. 이번부터 새로 공시되기 시작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는 1.68%로 기존 잔액 코픽스 1.98%보다 0.30%포인트 낮게 나왔다.

기존 잔액 코픽스는 전달보다 0.02%포인트 떨어져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78%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내렸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기존의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가 포함됐다.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기존의 코픽스 대상 상품을 모두 포함하면서 다양한 기타 예수금, 기타차입금 및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했다.

신코픽스 공시 이후에는 새로운 대출 계약시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도 기존 관련 대출계약을 위해 신코픽스와 병행해 산출해 공시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자는 신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대한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신코픽스가 0.30%포인트 하락한 만큼 기존 대출자는 재대출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잔액기준 COFIX 연동 대출로 갈아타는 것의 유불리 여부는 고객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

으므로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대출 기간 중 금리 변동 가능성,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신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대체 상환될 경우 일반 대출과 달리 기존 대출 시점의 LTV, DTI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기존대출의 현재 잔액 그대로 대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대환대출 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과되나 대부분 은행은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면제해주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다만 대환 시 담보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작거나 차주가 기존 대출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환 결정에 앞서 은행에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객진산 기자 jinsan@

### 나의 휴가지를 알리지 말라~

## ‘農心’ 찾아 떠나는 이대훈 행장

(NH농협은행)

### 홀로 2박3일 ‘팜스테이’ 계획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 등 모색



구상을 했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일부 지역공동체에서 진행 중인 ‘야간 마을학교’ 개념과 비슷하다.

이대훈(사진) NH농협은행장이 이번 여름휴가에 비서, 운전기사 등 수행원들을 떼놓고 홀로 ‘팜스테이’를 떠난다. 휴가지에서도 발로 뛰며 농촌민심을 듣는 농촌 지도자형 면모가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 행장은 기자와 만나 “이달 말 2박 3일간 팜스테이로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팜스테이(farm stay)는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농사, 생활, 문화 체험과 마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체험 여행 프로그램이다. 이 행장은 측근에게 휴가 장소를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행장 직위를 숨긴 채 직접 차를 몰고 인근 농가에서 머물며 밑바닥 농심을 들겠다는 의지다.

이 행장은 이번 휴가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행장은 “농촌 다문화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기 어려운 환경 등으로 2세 격정이 많다고 들었다”며 “다문화가정 부모들에게 한국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직접 물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행장은 “지역마다 있는 마을회관에 책상, 칠판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전국에 있는 우수한 농협 직원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란

그는 “임기 때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간은 진정성 있게 가야 한다”며 “농협은행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국민의 농협’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녁에는 들고간 책 3권을 탐독하며 임기 후반기 경영 구상에 몰두할 예정이다. 이 행장은 2018년 취임 초부터 ‘디지털 부문에서는 확실히 리딩뱅크가 되겠다’는 목표를 두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 매주 월요일 이후 5시간은 NH디지털혁신캠퍼스로 출근해 업무를 본다. 1일 이 행장은 IT 등 디지털 관련 4개 부서 실무자 40명과 3시간가량 끝장토론을 하기도 했다.

이 행장은 최근 디지털전환(DT·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올원뱅크’의 사업 고도화 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지시했다.

현재 경영전략 컨설팅 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 11월 말 올원뱅크 분사 등 디지털 관련 구체적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5년새 20% 증가

### 여름철 휴대품 사고 최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이 최근 5년간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름철 휴대품 사고가 가장 빈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보험개발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14~2018년 해외여행보험 가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가입 건수와 수입보험료가 각각 연 평균 24.9%와 21.9% 증가했다.

특히 휴대품손해담보 수입보험료 실적이 대폭 증가해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9%에서 지난해 18.1%로 2배 늘었다.

해외여행보험의 사고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상해사망(후유장해 포함)사고가 5716만 원, 질병사망(후유장해 포함)은 1627만 원 수준을 보였다.

해외발생 상해의료비 보험금은 46만 원,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보험금은 29만

원, 휴대품손해담보 보험금은 평균 19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입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담보별 사고건수도 늘었으며 특히 배상책임과 휴대품손해담보의 사고건수 증가폭이 컸다.

지난해 여행 중 상해사고로 해외 여행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가입자 1만 명당 14.7건, 질병치료는 33.5건으로 지난 4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휴대품손해 사고는 가입자 1만 명당 204.8건, 배상책임 사고는 3.5건으로 2015년 각각 164.9건과 2.4건보다 증가했다.

서지연 기자 sij@

www.douzone.com

#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툴 제공

### 기업용 ERP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영업관리
- 무역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 외주관리, 서비스관리, 경영정보관리
- 공사현장관리, 더존 iCUBE, 더존 iCUBE Cloud Edition

###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 예산관리, 자산관리, 후원자관리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경영정보관리
- 영업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 더존 iCUBE G20,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더존 ERP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 ‘롯데GS화학’ 합작사 설립...2023년까지 8000억 투자

**롯데케미칼·GS에너지 맞손**  
전기·차량용 플라스틱 원료 생산  
연매출 1조·영업익 1000억 기대

**양사 안정적 거래처 확보**  
“화학·정유 시너지 이끌어낼 것”

롯데케미칼이 GS에너지와 8000억 원 규모의 대형 석유화학사업 합작 투자에 나선다.

롯데케미칼과 GS에너지는 15일 서울 잠실 롯데 시그니엘에서 양사 대표이사 간에 비스페놀A(BPA) 및 C4유분 제품을 생산하는 합작사 ‘롯데GS화학’ (가칭)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합작사는 올해 하반기 설립 예정이며, 지분율은 롯데케미칼이 51%, GS에너지가 49%다.

신규 합작사는 2023년까지 총 80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BPA 제품 20만 톤 및 C4유분 제품 21만 톤 생산규모의 공장을

건설한다.

공장은 롯데케미칼 여수 4공장 내 약 10만㎡의 부지에 들어선다.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원과 1000억 원이다. 두 회사의 합작사업으로 77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작사가 생산하는 BPA는 전기·전자 제품, 의료용 기구 및 자동차 헤드램프 케이스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PC)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C4유분은 탄화수소 혼합물로서 추출과정을 통해 합성고무 원료인 부타디엔(BD) 및 인조대리석 원료인 TBA(Tertiary-Butyl Alcohol)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롯데케미칼과 GS에너지의 사업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롯데케미칼은 합작사로부터 BPA를 공급받아 PC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의 C4유분 제품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또 GS에너지는 자회사인 GS칼텍스를

통해 합작사의 제품 생산원료인 프로필렌, 벤젠, C4유분 등을 합작사에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석유화학 부문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는 “당사는 석유화학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안정적 공장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롯데케미칼의 역량을 바탕으로 정유·석유화학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의 시너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용수 GS에너지 대표는 “GS에너지는 정유·석유화학, 자원개발, 전력·집단에너지 등 기존 핵심사업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업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다”며 “석유화학사업 역량이 뛰어난 롯데케미칼과의 이번 합작사업을 통해 에너지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15일 서울 잠실 롯데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롯데케미칼-GS에너지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식에서 GS에너지 허용수 대표이사(왼쪽)와 롯데케미칼 임병연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케미칼

## 전경련, 日 네트워크 가동 수출규제 당국에 철회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 규제를 철회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국제 가치사슬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일본 기업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이번 제재를 철회하고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를 높이라는 요청이다.

전경련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며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수출규제 품목을 전략물품으로 추가 확대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으로,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일본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일본 측에 수출규제 방침 철회 이유로 △국제 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 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경련은 이번 수출 규제에 일본-한국-미국·중국·EU로 연결된 가치사슬이 교란될 것으로 우려했다. ICT 산업은 일본(소재 수출)→한국(부품 생산)→미·중·EU(제품화)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

이번 수출규제가 적용된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 소재로 한국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

하면 한국 업체뿐 아니라 글로벌 ICT기업 들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지적이다. 또한 전경련은 대한(對韓) 수출 기업뿐 아니라 일본 경제·국민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도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돼 전략 물품 수출규제가 적용되면 연 2조8000만 엔 규모의 일본 중간재의 한국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다. 또한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감정 악화로 연 851억 달러에 이르는 양국 전체 교역도 영향받을 것이라 관측이다.

전경련 측은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최대 85.9%, 예칭가스) 이미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또한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경련은 정경분리 기조 약화와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의 불안도 이번 조치의 부작용으로 제시했다. 전경련은 “정치적 이유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행할 경우 그동안 암묵적으로 유지해온 ‘정경분리’ 기조가 약화돼 양국 간 경제교류가 위축될 수 있다”며 “또 역사적 안보 동맹국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MT  
1547.1135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 LS산전, 동남아 전력망 공략 본격화

베트남 스마트 전력에너지전 참가

LS산전이 베트남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차세대 전력 솔루션을 앞세워 동남아 전력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LS산전은 베트남 진출 1세대 전력 기업이자 현지 저압전력기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LS산전은 17-20일 4일간 베트남 호찌민시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열리는 ‘2019 한국-베트남 스마트 전력에너지전(KOSEF 2019)’에 직류(DC)와 교류(AC)를 망리한 스마트 전력 통합 솔루션 역량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LS산전은 ‘파워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 인 베트남(Power Total Solution

Provider in Vietnam)’을 메인 콘셉트로 국내 민간기업 중 최대인 12부스(108㎡)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고객 맞춤형 플랫폼 △스마트 전력 솔루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솔루션 등 3개 테마를 중심으로 현지 고객들이 직접 자사의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LS산전은 베트남 화력발전소 구축 사업 수주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높은 경제성장률과 전력 소비 확대로 전력 인프라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주요국을 본격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송영록 기자 syr@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에서 바꾸면 출발부터 즐겁다”



# 전세계 어디를 가든 환전은 역시 KB

## Let's KB 환전 페스티벌



### EVENT 1. 월드클래스급 최대 90% 환율우대

Liv(리브)로 환전 시 최대 90% 환율우대  
USD 90% / JPY·EUR 80% / 기프트콘 및 모바일 지급 포함  
KB네트워크환전, KB서울역환전센터, 외화 ATM(USD), 멀티 외화 ATM 이용 시 최대 80% 환율 우대



### EVENT 2. 전국 무료 외화 배달 서비스

KB-POST 외화 배달 서비스 이용 시  
신청금액 상관없이 배달 수수료 면제  
이벤트 기간: 2019. 6. 1(토) ~ 8. 31(토) / 배달 가능 지역: 전국(일부 도서산간지역 제외)



### EVENT 3. 제휴할인 및 적립금 혜택

씨타·두타·SM면세점 및 MK감자유학  
마이리얼트립·포켓와이파이에서 할인 및 적립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이벤트존 참조

\*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9-1046-1호 (2019.06.28) 광고물 유효기한 2019.08.31까지

진화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2> 혁신 부문 -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기술

기업들의 '혁신 기술'은 우리 사회의 환경과 안전을 책임지며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까지 주는 대표적인 사회적 책임경영 방안 중 하나다.

혁신 부문에서는 2회에 걸쳐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이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소개한다. 1회에서는 '육·해·공(陸·海·空)'에 걸쳐 우리의 소중한 환경은 물론 자연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다양한 혁신 기술을 조명한다. 2회에서는 혁신 기술이 경쟁사,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숨은 사례들도 엿볼 예정이다.

# 석탄발전소 굴뚝서 연기 사라진다

## 空 - 미세먼지 저감

두산중공업, 백연 제거기술 개발 포스코, 환경 개선 1000억 투입 삼성·LG, 공기청정 新가전 내바

삼한사미(三寒四微). '3일간 춥고 4일간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의미의 웃지 못할 신조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3일간 춥고, 4일간 따뜻한 날씨'를 의미하는 '삼한사온(三寒四溫)'은 이미 옛말이 됐다.

세계 주요 기관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0%에 달하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건강 악화'라고 보고 있다.

미세먼지가 치명적인 국민건강 위협 요인으로 부각되자 정부도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컨트론타워 역할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기업들도 함께 거들기에 나섰다. 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내놓으며 생산현장 등에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한국기계연구원과 화력발전소의 '연기·미세먼지'를 한 번에 잡는 혁신 기술 '고효율 습분제거기(EME)'를 개발했다.

EME는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처리시스템 중 하나로 배출가스가 굴뚝으로 나가기 전 마지막 단계에 적용되는 친환경설비로 탈황설비(FGD) 위에 설치, 정전기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굴뚝에서 나오는 백연의 주성분인 습분을 98%까지 제거할 수 있다.

또 기존 환경설비에 EME만 추가로 설치해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0.5mg/Nm3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이는 환경부 허용기준(12mg/Nm3) 대비 4%, 수도권 배출기준(5mg/Nm3) 대비 10%에 불과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백연(흰 연기)과 미세먼지가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2월 1일 경남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뿜어 내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오른쪽 위 사진은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본사에 설치된 석탄화력발전소용 파일럿 EME. 정전기를 이용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기와 미세먼지를 한번에 잡는 설비다.

포스코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조직 가동에 돌입했다. 지난달 그룹의 기술연구소 역할을 하고 있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설립했다. RIST 미세먼지연구센터는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혁신 기술'을 개발한다. 화학, 화공, 환경, 연소 관련 박사급 인력 10여 명으로 구성된 센터는 특히 다양한 산업공정에 적용이 가능한 초미세먼지 포집용 고효율 집진기술,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정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낮은 비용으로 저감할 수 있는 기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집진기 운전 자동제어 기술 등에 대한 개발도 추진한다. 포스코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1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가전제품에도 미세먼지 퇴치를 위한 혁신 기술이 더해졌다. 가전업체들은 다양한 미세먼지 솔루션 제품들을 내놨다.

공기청정기 '무공퓨브'는 하이브리드 집진필터를 장착해 초미세먼지 기준인 2.5μm(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0.3μm 크기의 먼지도 99.999%까지 제거할 수 있다. 이는 10만 개의 먼지가 필터를 통과한다고 가정할 때 단 1개의 먼지만 빠져나갈 정도로 높은 청정 수준이다. 또 삼성전자 무선 청소기 '삼성 제트'는 삼성만의 특허기술인 '제트 사이클론'을 적용해 27개에 달하는 에어홀이 최대 200W의 강력한 흡입력을 만들어 생활 미세먼지까지 빨아들인다.

LG전자의 의류관리기 스타일러는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에서는 매년 계절성 꽃가루로 인해 수도권 인구 중 절반가량이 2100만 명이 알레르기를 겪고 있는데 스타일러가 꽃가루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 일본 고객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간 것이다. 또 LG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빙 행어(Moving Hanger)' 기술은 강력한 힘으로 1분에 최대 200회 옷을 흔들며 털어낸 옷 전체의 미세먼지를 끌고 루 제거해 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한겨레 기자 nonglasses@

한겨레 기자 nonglasses@

한겨레 기자 nonglasses@



현대제철의 내진용 H형강 SHN. 사진제공 현대제철

## 123층 마천루도 지진에 끄떡없게

## 陸 - 내진 강재 개발

2016년 9월 광주에서 지진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다. 2017년 11월에는 포항에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해 대학수확능력시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진은 예측이 어렵다. 피해 범위가 넓어 복구 시간도 오래 걸린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내진(지진에 견디는 것) 설계를 바탕으로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조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내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내진용 강재' 선도 업체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구조 재료로 많이 쓰이는 콘크리트에 비해 형강·후판·철근·강관 등으로 분류되는 강재(Steel)는 지진과 같은 외력에 대해 저항하는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건축물의 붕괴 유형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로는 충분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며 내진용 강재(건축 구조용 강재)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했다.

현대제철은 2005년 국내 최초로 내진 성능이 확보된 SHN(건축구조용열간압연형강)을 개발했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SHN은 국내 주요 건축물인 잠실롯데월드타워, IFC in seoul, 일산 킨텍스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 화력발전소, 제2남극기지 등 극한의 환경에서 건설된 구조물에게까지 널리 적용되고 있다. 2006년 400톤에 불과했던 SHN 판매량은 2014년 28만 톤, 2016년 59만 톤, 2017년 65만 톤을 기록하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대제철은 2011년부터 내진용 철근 개발에 착수하고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국내 최초로 내진용 철근을 개발한 데 이어 최근 성능을 한층 강화한 강종 개발에 성공했다.

현대제철의 내진용 강재 개발 의지는 2017년 11월 내진 강재 브랜드 'H CORE' 출시로 이어졌다. 회사 측은 'H CORE'에 대해 "지진의 충격을 흡수해 지각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을 지닌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강재 대비 높은 에너지 흡수력·충격인성·용접성 등의 특성이 있어 이를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외부 충격으로부터 거주자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

한겨레 기자 nonglasses@

# 황산화물·페플라스틱 줄여 생명이 숨쉬는 바다만들기

## 海 - 선박 오염 개선

현대상선, 매연 탈황 설비 구축 우시산, 선박 쓰레기 업사이클링

바다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바닷속 쓰레기 문제가 큰 화두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사람들이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들이 바다를 골방들게 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섰다. 현대상선은 탈황설비인 '스크러버'를 설치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SK이노베이션이 후원하는 사회적기업 '우시산'은 바다에서 나온 페플라스틱을 이용한 상품 만들기를 통해 환경 지키기에 동참하고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대기 오염물질이 골치였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이 늘어나면서 바닷물이 오염되

고 곧 바다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황산화물은 3대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선박에서만 전체 양의 13%를 배출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치를 규제하는 'IMO 2020'을 발효한 것이다. IMO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는 규제다. 황산화물 배출을 막아 바다 환경 오염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변화는 해운업에 큰 패러다임을 몰고 왔다. 2020년부터는 선박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고유황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3가지를 꼽았다. 첫째, 연료를 바꾸는 것이다. 고유황유에서 황 함유량이 적은 저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선체에 '스크러

버'라고 불리는 탈황설비를 설치해 배출되는 황산화물의 함유량을 낮추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석유가 아닌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LNG 선박이 대표적이다.

국적 해운사인 '현대상선'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크러버' 설치를 택했다. 현대상선처럼 보유 선대가 적으면 스크러버를 설치해도 초기 비용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스크러버 설치의 장점은 기존에 사용하던 고유황유를 계속해서 사용해 원가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020년 전후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면 타 해운사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스크러버 설치를 통해 황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을 90%가량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해 일거양득이다.

해양 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플라스틱 문제가 불거질 무렵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

들을 고래가 먹으면서 폐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 안타까운 사건에 귀를 기울인 사회적기업 '우시산'은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며 환경 분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섰다.

우시산은 SK이노베이션이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다. 2015년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에너지와 울산 남구청이 함께 마련한 창업 공모전에서 탄생한 기업이다. 울산의 상징인 고래를 보호하지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우시산은 울산항에 입항하는 대형 선박들이 안고 온 페플라스틱 폐기물을 업사이클링(버려지는 천이나 목재 등을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해 인형, 에코백, 티셔츠 등 친환경 제품을 제작한다. 죽은 고래 뱃속에서 많은 페플라스틱이 나온 것을 보고 페플라스틱을 활용해 고래 인형을 만드는 역발상을 한 것이다. 김기승 기자 kiss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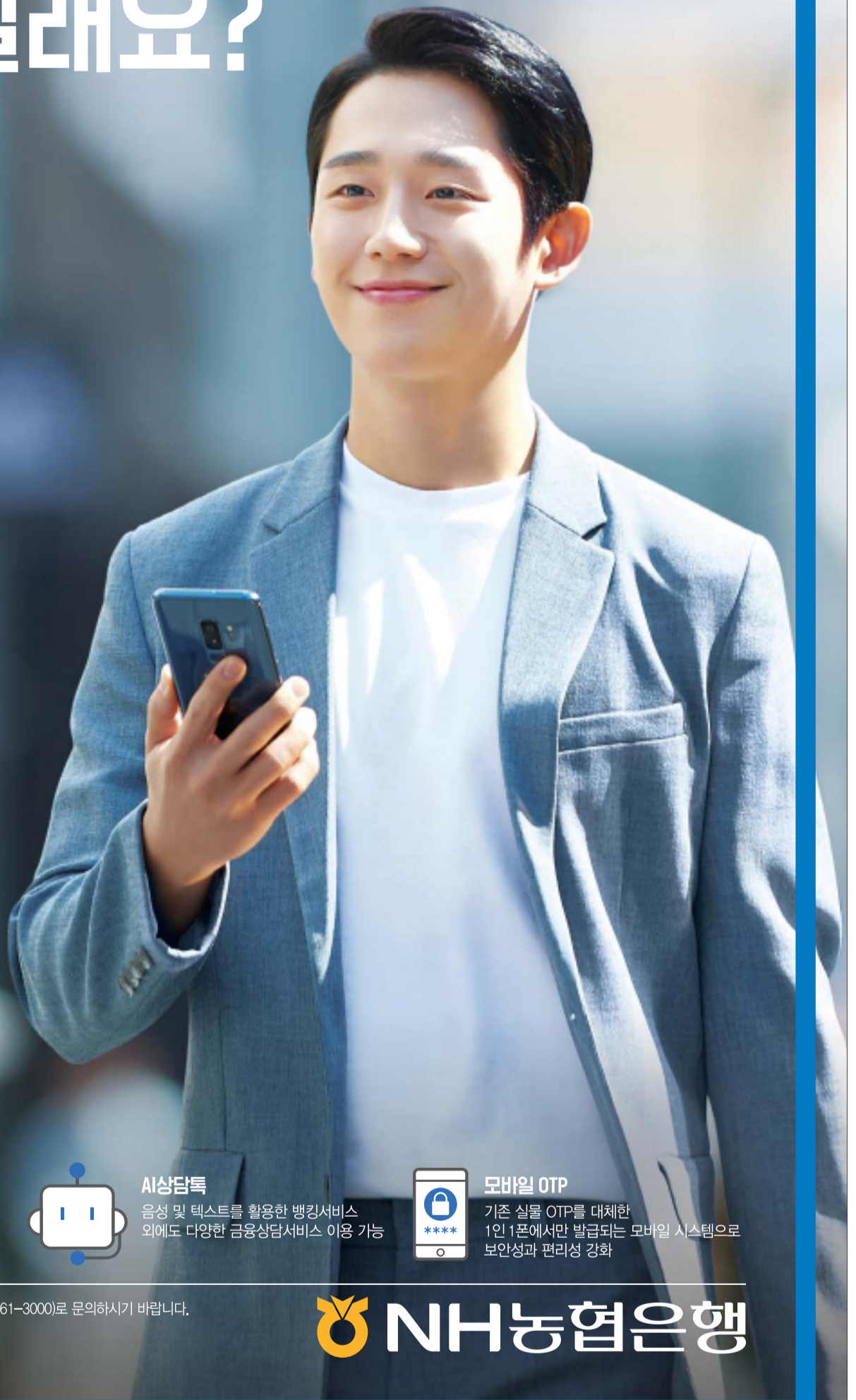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은행의 모든 것을 한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과 기술이 NH스마트뱅킹one up으로  
스마트하게 한편이 되었습니다.  
은행의 모든 것을 한번에 편하게!  
NH스마트뱅킹one up과 함께  
더 빠르고 편리해진 금융을 만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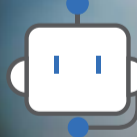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스마트뱅킹one up**



**개인별 맞춤 서비스**  
고객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별 맞춤화면 제공 및  
금융상품 추천



**키보드뱅킹**  
문자나 SNS실행 중에도  
모바일 키보드를 이용한  
계좌송금 가능



**시상답톡**  
음성 및 텍스트를 활용한 banking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금융상담서비스 이용 가능



**모바일 OTP**  
기존 실물 OTP를 대체한  
1인 1폰에서만 발급되는 모바일 시스템으로  
보안성과 편리성 강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900001702 (2019.05.15.~2020.05.31.) ※ NH농협은행 디지털채널부 개발상품

**NH농협은행**



## 올 여름휴가는 농촌에서 즐기는 뉴트로 감성여행 전국 팜스테이 마을에서 즐기세요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NH** 농협





〈평택〉

# 공급 과잉에도 집값 '쑥'... 고덕신도시 '기분좋은 집들이'

입주 본격화... 거래 늘고 프리미엄 7000만원 이상  
판교 1.5배 크기... 개발 초기단계로 상승여력 많아  
삼성전자 고덕에 신설라인 건설 예고도 큰 호재로

“아직 주변 인프라(기반시설)는 많이 부족하지만 몇 년만 있으면 크게 달라질 것이 확실한 만큼 기대를 갖고 입주했습니다.”(‘고덕 파라곤’ 아파트 입주자 김모 씨)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침체한 인근 지역 주택시장과는 달리 달아오른 분위기가 완연히 감지되고 있다.

고덕 파라곤 아파트가 지난달 29일 첫 입주를 시작했지만 주변 지역은 공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신도시 곳곳에서 주택과 상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입주를 시작한 단지들은 물론이고 입주를 앞둔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가 쑥고 프리미엄(웃돈)도 적잖게 형성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고덕신도시에서 총 129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특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지난 2분기부터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4월 17건, 5월 29건, 6월 43건이 거래된 것이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도 벌써 15건이 매매됐다.

아파트값도 오르고 있다. 고덕 파라곤 전용면적 71㎡짜리 분양권은 3월 3억 9430만 원에 거래됐고 지난달에는 4억 490만 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 분양가가 3억 3000만 원대 였던 것을 감안하면 웃돈이 7000만 원 이상 붙어 거래된 것이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평택시 일대가 주택 공급 과잉 우려로 시세가 맥을 못추고 있지만, 이곳 고덕신도시는 판 세상이다”라며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잘 내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덕 파라곤뿐 아니라 고덕신도시에서



는 8월에는 ‘고덕 자연앤자이’가, 11월에는 ‘고덕 제일풍경채’가 집들이에 나선다. 때문에 이들 단지에 대한 매일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고덕 자연앤자이(총 755가구)의 경우 이달에만 8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고, 지난달에는 무려 40건의 거래가 이뤄졌



다. 분양권 시세 역시 전용 84㎡가 4억 1000만 원을 넘어섰다.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웃돈이 2000만~7000만 원까지 붙었지만 찾는 사람이 꾸준한 편”이라고 전했다. 고덕신도시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가격 상승 여력이 더 많다고 판단한 실수요 및 투자수요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덕신도시는 판교신도시보다 규모가 약 1.5배 이상 넓기 때문에 크게 3단계로 나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는 수도권전철 1호선 서정리역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1단계 구간

내 들어서는 단지들이다. 2단계 구간 개발도 올해 본격화한다. 평택시청을 비롯해 행정기관 중심으로 개발되는 곳으로 평택 박물관·중앙도서관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고덕신도시에서 가장 핵심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공원과 수변공원 조성도 3단계 사업으로 예정돼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도 잇따른다. 5월 ‘고덕 파라곤 2차’를 시작으로 7월 중에는 ‘고덕 리슈빌 파크뷰’ 등이 분양한다. 경기 남부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어질 평화예술의 전당도 올해 착공해 2021년 준공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의 추가 투자를 발표하면서 고덕 국제신도시에 신설라인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것도 대형 호재로 꼽힌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평택 고덕신도시는 동탄신도시와 함께 ‘삼성 신도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수도권 남부 최대 자족도시라는 기대감에 고덕신도시 부동산 시장은 평택의 구도심 지역과는 달리 상승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서울 아파트 분양가 1년새 21%↑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빨라지나

3.3㎡당 평균가격 2673만원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이상 올랐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35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3.3㎡으로 환산하면 1167만 5400원이다. 전월 대비 1.52%, 전년 동월 대비 9.66% 각각 상승한 수치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810만 원으로 전년 동월(669만4000원)보다 21.02% 올랐다. 3.3㎡ 기준으로는 2673만 원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을 고려 중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같은 기간 18.05% 오른 550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5대 광역시(부

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세종시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372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85%, 전월 대비 0.03% 각각 상승했다.

기타 지방(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268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96% 오르는데 그쳤다.

아울러 지난달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1만8390가구로 전년 동월(1만 3009가구) 대비 41% 증가했다.

수도권의 신규분양 가구 수는 1만758가구로 이달 전국 분양물량의 58.5%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7554가구) 대비 42%가량 증가한 규모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5579가구로 전년 동월(2254가구) 대비 148%가량 증가한 반면, 기타 지방은 2053가구로 전년 동월(3201가구) 대비 36%가량 줄었다.

한편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세부 정보는 HUG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 한신공영, 강북구 미아동 재건축 맡는다

203가구... 9월 분양 예정

한신공영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한신공영은 11일 미아동 3의 111 일대 재건축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신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도금액은 약 412억 원, 공사 기간은 30개월이다.

단지는 1만327㎡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1층짜리 아파트 6개 동, 총 203가구 규모가 조성된다. 조합원분 84가구를 제외한 119가구(전용면적 55~84㎡)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미아사거리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화계초·송중초·창문여중·신일고 등 학교가 단지와 가깝다. 롯데백화점, 이마트도



강북구 미아동 주택재건축사업 조감도.

반경 1km 내에 자리잡고 있다. 9월 분양 예정이다. 입주는 2022년 2월로 잡혔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업계 상위권 건설사들도 서울 도심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사적 노력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69년 전통과 역량을 통해 쌓아온 기술력을 집대성한 강소 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순 없을까?”

굿네이버스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행복한 세상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이들 편에 서주세요

**아이들 편에서  
놀이를 외칩다**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굿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해례본>

# “훈민정음 상주본 국가 회수 정당” 서울에 ‘자전거 하이웨이’ 만든다

## 대법 “소장자 절도 혐의 무죄라도 소유권은 국가에”

배익기 씨가 소유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문화재청의 반환 강제집행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주본 소장자 배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배 씨는 골동품 판매상 조모 씨로부터 2008년 무렵 고서적 2박스를 30만 원에 사들이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 넣는 방법으로 빼돌렸다. 조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은 해례본을 돌려줘야 한다고 선고했고, 2011년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배 씨는 절도

혐의에 대해 2014년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조 씨는 2012년 5월 국가에 상주본 소유권을 기증하겠다고 밝힌 뒤 사망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상주본 회수에 나서자 배 씨는 “형사 판결로서 고서에 대한 절취 행위는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형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고서의 소유권이 배 씨에게 있어 민사 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배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고서의 소유권이 배 씨에게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2017년 4월 10일 배익기씨가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일부.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배 씨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 박원순 시장 ‘보행친화 도시’ 전략 차도 줄여 자전거 도로와 분리

“이동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라는 원칙 아래 자동차 위주로 설계된 교통 체계를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하는 보행친화 도시 신(新)전략을 기동하겠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고타 ‘시클로비아’를 방문해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선언하고 서울에 ‘자전거 하이웨이(CRT)’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 정책 수립 시 차도를 먼저 확보하고 공간이 남으면 보도를 만드는 산업화 시대 공식을 뒤집는 ‘보행 친화도시 신(新) 전략’을 기동하겠다고 선언한 것. 보행과 자전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후 나뉠·전동휠 등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과 노상주차장·가로공원 등을 이후 고려하고 나머지 공간을 차도에 할애하는 내용이다.

시클로비아는 ‘자전거 길(ciclo+via)’이라는 뜻의 스페인어로 1982년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보고타 주요 간선도로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차 없는 거리 행사다.

서울시는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물을 설치해 ‘자전거 하이웨이’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차로 높이였던 기존 가로변 자전거 도로의 경우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녹색교통지역 확대, 도로공간 재편과 연계해 보도 높이로 조성한다. 과감하게 차도를 축소하고, 자전거 도로와 차로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한강 교량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자전거 도로망과 5개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 조성한다. 가양대교(서울식물원-하늘공원), 원효대교(여의도공원-용산가족공원), 영동대교(압구정로데오거리-서울숲) 등은 교량과 주변 관광자원과 연결해 피크닉, 나들이에 특화된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고 자전거 도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문정, 마곡, 향동, 위례, 고덕강일 5개 도시개발지구는 총 72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자전거 도로율 40% 이상) 마포이대여소도 집중 설치해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하반기 3억 원을 투입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개소별·구간별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희 기자 jh6945@

## 고령자 신체능력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

### 경찰, 조건부 면허 검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가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무조건적인 면허취소가 아닌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신체능력에 따라 운전을 제한하거나 첨단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감률 경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이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등 일정 조건과 함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 측면에서 조건부 면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이가 조건부 면허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운전능력 평가 절차 등을 거쳐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해외사례 조사, 전문연구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 “최저임금 약속 지켜라”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비정규직 철폐·재벌개혁·노동탄압 분쇄·최저임금 1만원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요구가 담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 김대중 웹툰전·노무현 시화전... 대통령 문화 추모 활발

전 대통령들이 웹툰, 시화전 등 감성적이고 대중적인 문화 이벤트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떠올랐다. 생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고인의 인간적 면모를 재조명하고 있어 온 가족 나들이로도 제격이다.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하는 제23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하 SICAF 2019)은 정계 입문 전 사업가로도 역량을 펼쳤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간적 모습을 담은 ‘청년사업가 김대중 展’을 진행한다.

24일까지 제주 문학의 집 북카페에서는 서거 10주기를 맞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캘리그라피 시화전이 열린다.

전시회에서는 5월 발간된 노무현 추모 시집 ‘紅鬃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에 수록된 시 중 33편을 캘리그라피 작가들과 콜라베이션으로 작업한 작품을 선보인다. 시집에 수록된 작품 중 ‘노무현 정신’을 보여주는 구절을 중심으로 선별해 아름다운 캘리그라피로 재구성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최규하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 전시회가 25일까지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다.

김소희 기자 ksh@

재미

공감

행복

## BRAVO My Life

# 정기구독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잼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잼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 제네시스 첫 SUV부터 픽업트럭까지... '신차 왕좌' 쟁탈전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 하반기 쏟아지는 국산 신차

올해는 어느 해보다 국산 신차가 풍년이다. 차 한 대 개발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던 예전과 달리, 신차 개발 기술과 노하우가 늘면서 연구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 역시 기술수준이 안정화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신차들이 쏟아지는 양상이다.

덕분에 5~7년이었던 신차 출시 사이클도 줄었다. 자연스레 '소품종 다량판매' 구조가 '다품종 소량판매' 형태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예전보다 고를 수 있는 차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제 3~4년마다 후속 신차가 나오는 시대가 됐다.

소형 SUV '베뉴' 이어 '셀토스' 출시 예정  
콘셉트카 모티프 'GV80' SUV 시장 도전  
대형세단 'K9' 수준 '모하비' 신형도 나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반기에는 더 다양한 신차가 쏟아질 예정이다.

당장 이달 들어 기아차가 준대형 세단 K7 부분변경 모델인 'K7 프리미어'를 출시했다. 현대차는 코나 아

랫급 SUV로 '베뉴'를 내놨다. 이달 말에는 기아차 스포티지와 스톤이 사이에 소형 SUV 셀토스가 파고들 예정이다.

남은 하반기에도 걸출한 신차 출시가 예고돼 있다. 먼저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GV80을 앞세워 처음으로 SUV에 도전장을 던진다.

구체적인 출시 시점과 제원 등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콘셉트카에서 보여준 갖가지 진기한 디자인이 고스란히 양산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형 세단 G90에서 보여준 5각형 크레스트 그릴, 전조등을 위아래로 나는 쿼드타임 램프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현대기아차가 처음으로 시도한, 뒷바퀴를 전용 직렬 6기통 3.0 디젤 엔진을 얹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기아차는 데뷔 12년을 넘어서고 있는 모하비 신형을 내놓는다. 울림 서울모터쇼에 선보인 콘셉트카 '모

하비 마스터피스'가 밑그림이다. 새 모하비에는 대형 세단 K9 수준의 다양한 첨단 장비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사라질 것으로 알려졌던 V6 3.0리터 S2 디젤 엔진과 8단 변속기를 유지하되 차 안팎을 화끈하게 바꿔 신차급 변화를 가져온 게 특징이다. 여기에 '보디 온 프레임' 구조 SUV 가운데 이례적으로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담았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 밖에 현대차는 현행 6세대 그랜저IG의 부분변경 모델을 하반기에 선보인다. 아반떼 부분변경 모델과 8세대 쏘나타에서 보여준 디자인 터치가 새 모델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엠은 북미 정통픽업 콜로라도를 8월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생산이 아닌 직수입이지만 쉐보레 브랜드 이미지 확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junior@

## 타보니

### 주행성능 기대 이상... 첨단기능 편한 운전

#### 현대차 베뉴

현대자동차가 '히려이프'라는 콘셉트를 내세운 '베뉴(Venue)'의 첫인상은 '다부짐'이다. 작지만 단단한 인상을 준다. 날렵한 방향지시등과 하단부 사각형 LED 주간주행등이 강렬한 인상을 더한다. 다만, 전면부의 캐스캐이딩 그릴은 다소 아쉽다. 철조망을 연상시키는 격자무늬는 팰리세이드처럼 보다는 큰 SUV 모델에 어울릴 법하다.

내부 공간은 생각보다 여유가 있다. 운전석에 앉아보니 키가 182cm인 기자의 머리 위로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 1565mm에 달하는 전고 덕분이다. 상위급 차종인 코나의 전고(1550mm)와 비슷한 수준이다. 뒷좌석 역시 넉넉하다. 성인 남성이 앉아도 앞좌석 시트에 무릎이 닿지 않는다. 실내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8인치 내비게이션은 큼직한 화면을 자랑하고 공조 컨트롤 역시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조수석 앞에 있는 작은 수납공간은 지갑이나 스마트폰 등을 놓기에 적합하다.

주행 성능은 엔진 크기 대비 기대 이상이다. 액셀을 밟을 때 가속감이 나쁘지 않고 브레이크도 즉시 반응한다. 고속도로 진입 후 운전모드를 스포츠로 설정하자 주행 성능에 변화가 느껴진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속 시 차체가 앞으로 툭 튀어나가는 느낌이 강해진다. 시속 130km까지 가속하는 데에 무



리가 없다.

베뉴가 기본사양으로 갖춘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도 유용하다. 차로 이탈방지 보조 시스템은 곡선 도로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시속이 60km 이하로 내려가면 순식간에 시스템이 풀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버스전용차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때도 있어 긴장을 놓을 수는 없다. '나만의 자동차' 콘셉트를 강조하는 베뉴답게 차를 선호에 따라 꾸밀 수 있다. 지붕 색상상을 외부와 달리할 수 있는 '투톤 루프'가 대표적이다. 골라 만드는 재미가 있다.

베뉴는 현대차의 SUV 제품군 중 막내 격이다. 그럼에도 베뉴는 '갖출 건 갖춘 막내'다. 작지만 야무진 베뉴는 '히려이프'를 즐길 당산만의 공간(Venue)으로 손색이 없다.

유창욱 기자 woogi@

### 최고출력 266마력 "밟는 순간 땡~"

#### 기아차 K7 프리미어

첫 인상은 기괴하다. 이른바 그로테스크(grotesque) 디자인이다. 밑그림이 된 2세대와 비교해 전조등은 날카롭게 뿔아내 크기를 줄였다. 반대로 사이즈를 마음껏 키운 '프론트 그릴'은 과감하고 공격적이다. 마치 무언가를 가져다대면 단박에 집어삼킬 만한 과격한 모습은 윗급 대형 세단에 견줘도 모자람이 없다. 뒷모습은 한결 젊어졌다. 양쪽 테일램프를 LED 램프로 연결한 모습이 승명적인 맛수 현대차 그랜저IG를 의식한 모양새다.

도어를 열면 이제껏 보지 못한 우아함이 펼쳐진다. 실내는 현대차 그랜저IG는 물론, 인테리어 만들기가 경지에 다다른 인피니티(닛산의 고급 브랜드)와 견줘도 손색이 없다.

센터페시아 위에 심어놓은 12.3인치 디스플레이는 최근 트렌드를 거스른다. 대시보드를 뚫고 나온 이른바 '아웃대시 타입' 모니터가 넘쳐나지만 K7 프리미어는 단정하게 대시보드 위에 대형 모니터를 심었다. 오히려 잘한 선택이다.

손길이 닿고 시선이 머무는 곳 모두 이 시대 기아차가 빛어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감성품질을 담고 있다.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첨단 기술도 모조리 쏟아냈다.

시승차는 V6 3.0 GDi 모델이다. 이밖에 차세



대 스마트스트림 계열의 △직렬 4기통 2.5 직분사 엔진을 비롯해 △직렬 4기통 2.2 R디젤 △V6 3.0 LPi도 나온다. 3.0 GDi 엔진은 비교적 고회전인 6400rpm에서 최고출력을 무려 266마력이나 뽑아낸다. 드라이브 모드를 D로 옮기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자 경쾌하게 정지상태를 벗어난다. 점잖고 우아한 운전석에서 만나는, 차고 넘치는 고출력은 어느 준대형 세단에 모자람이 없다.

K7 3.0 GDi는 극단적인 쥐어짤 없이 가진 출력을 여유롭게 뿌린다. 차고 넘치는 엔진 출력 덕에 어느 순간에서나 마음먹는 곳으로 차를 쉽게 던져낼 수 있다. 가벼우면서 육중한 힘에 익숙해지면 제법 날카롭게 빈자리를 찾아줄 수 있다.

K7 프리미어에는 과격함과 우아함이 공존한다. 꽤 공격적인 걸모습과 달리 실내는 우아한 감성품질이 녹아 내렸다.

김준형 기자 junior@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 +100<sub>yd</sub>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205g~ 44%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최적화 기술 적용

##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 - 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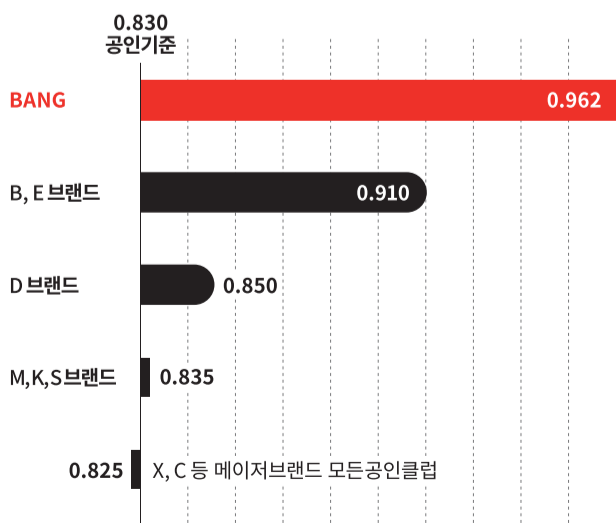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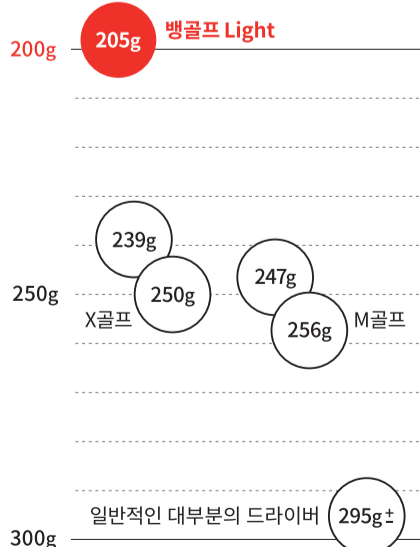
VVIP 고객님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 고반발 기술 격차



### 경량화 기술 격차




###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BANG Light	타사
드라이버 사양 종류	999,000가지	획일적인 몇가지
드라이버 무게 종류	205g ~ 325g까지 120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드라이버 강도 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SR, R, L 등 몇가지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R 두가지 안팎
아이언무게(9번 기준)	남 333g 여 312g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아이언 샤프트 종류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헤드 무게 조정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드라이버 100yd 골퍼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 우리의 미래 이것이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게 달리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타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쓰기만 해도

자연과 함께하는 기술

이게 바로, SK이노베이션의

자연스러운 혁신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컨츠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아이이테크놀로지